

금속노조 총파업 교육지

교육지 4호
2019. 7. 10(수)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5(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02-2670-9555 FAX.02-2679-3714 kmwu@jinbo.net

7월 18일, 금속노조 시기집중 1차 파업

[금속노조 7월 18일 파업방침 - 2019. 7. 9. 1차 중앙쟁대위 결정]

노동계약 어렵었다



- ▶ 금속노조는 7월 18일(수) “2019년 임단협 투쟁 승리! 노동탄압 분쇄! 노동기본권 확대! 조선 구조조정저지! 최저임금 1만원!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기조로 시기집중 1차 파업을 전개하고, 지역별로 개최되는 “노동기본권 확대! 노동법 개악저지! 비정규 직철폐! 재벌개혁! 노동탄압분쇄!”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결합한다.
- ▶ 쟁의권을 확보한 단위는 4시간 전조합원 파업을 전개하고, 쟁의권 미확보단위는 확대간부 파업을 전개해 총파업대회에 참여한다.

문재인 정부, 7월 18일 노동계약안 환노위 상정 예고

금속노조, 민주노총 투쟁방침에 맞춰 7월18일 1차 시기집중 파업 결정

6월 국회는 패스트트랙 관련 특위(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 중 1개를 자유한국당에 주며 양보해 개원을 했고, 7월 15일 환노위 고용소위를 개최, 7월 18일에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의결을 할 예정이다. 이번 환노위에서는 탄력근로제확대와 취업결정제도개약을 밀어 부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노총은 총파업투쟁을 통해 친재벌, 반노동정책을 회귀한 문재인정부에 대한 투쟁을 본격화 하고 ILO 협약 기준을 넘어 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하는 노동기본권확대와 노동법개악저지, 비정규직 철폐, 재벌해체 등의 의제를 걸고 투쟁에 나선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 6월 25일 58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일정에 맞춰 7월 18일 1차 시기집중 파업을 결정한바 있다..

금속노조는 7월 9일 1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59차중

집)을 열고 1차 시기집중 총파업 요구 및 세부 전술을 결정했다.

■19년 임단협 투쟁 승리! ■노동기본권확대! ■조선구조조정저지! ■최저임금 1만원!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의제를 걸고 7월 18일 오후 2시 지역별 동시다발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

7월 4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 연설을 통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주휴수당폐지’,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자유계약법’ ‘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에 개입하는 노조사 회적책임법’ 등의 노동개악을 밀어부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경총은 7월 3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시급을 전년보다 4.2% 삭감한 8000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넘어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

"노동자유계약법을 도입해야 한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지난 7월 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자유를, 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노동 시장을 보장해야 한다. 신규 일자리 창출, 바로 계약자유화에서 시작 된다" 며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한다. 그 자유 경제의 길을 자유한국당이 열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죽도록 일할 의무'와 '마음껏 해고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발상이다.



금속노조는 6월 국회가 의사일정을 합의해

개정하고 노동계약법을 상정하며 도발한다면 48차 중집 결정대로 노동계약 저지를 위해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원회 개최일에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 노동계약철폐! 노조할권리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 전조합원 2시간 이상 선제적 경고파업'을 전개한다.

또한 19년 임단협투쟁 승리를 위한 18만 쟁의권 확보를 위해 7월 5일(금) 공동조정신청 및 7월 8일(월)~10일(수) 공동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조직해 나간다. 당면한 정세를 반영해 19년 임단협 투쟁 기조를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 최저임금 1만원 쟁

취! 생활임금쟁취! 원하청 불공정거래개선'으로 가져간다.

7월 중-하순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민주노총 7월 총파업 일정에 맞추어 금속노조의 현안문제(구조조정 저지 등)를 결합해 쟁의권 확보한 단위를 중심으로 금속노조 1차 시기집중 공동파업을 전개하고 쟁의권 미확보 단위는 확대간부 집결투쟁을 전개한다. 조선 및 철강업종 7월말 공동파업도 조직해 나간다.

휴가 전 타결방침을 수정해 18만 조합원 전체 쟁의권이 확보되는 **8월 중순. 18만 시기집중 2차 공동파업**을 조직하고 중앙교섭도 진행해간다.

노동법개악은 지옥의 문을 여는 것, 금속노조 18만 조합원의 총파업 투쟁으로 기필코 막아 내자.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 사업장내 쟁의행위 금지,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단협유효기간 3년, 선제적 직장폐쇄 허용, 파업찬반투표 절차강화 등 개악안이 통과되면 지옥의 문이 열린다.

금속노조는 지난 2월부터 노동법 개악안 "환노위 상정 즉시 전면전"을 정부와 자본에 경고했다.

임단협 투쟁은 해마다 노조의 힘에 따라 얼마든지 상향시켜 나갈 수 있지만 법은 한번 개악되면

다시 원상회복해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다.

법 개악은 어느 특정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전체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ILO핵심협약 비준으로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과 노조 할 권리를 부여하진 못할 망정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정부와 자본의 총 공세에 금속노조 명운을 건 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내자.